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Cooperative Storage Facility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윤 정 옥(Cheong-Ok Yoon)*

심 경(Kyung Shim)**

곽 동 철(Dong-Chul Kwack)***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III.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
| II. 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상의 특성 | 모형 제안 |
| | IV. 맺음말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한 기능적 특성을 검토 및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다양한 사례와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공동보존서고의 물리적 시설, 부지의 확보와 건축, 운영 방안,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자료의 소유권,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의 모형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는 교내 공간의 최적의 활용성을 보장하고, “마지막 한 부”를 보존하며, 보존자료의 이용 효율을 보장하는 시설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역별, 권역별 단위 구축, 목적용 고밀도 저장시설의 신축, 인쇄자료 중심의 장서구성, 공동소유권의 인정 및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도서관리 및 접근 시스템의 채택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자원공유와 보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haracteristics of a cooperative storage facility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For this facility, discussed are how to select a site, build physical facilities, recruit participating organizations, prepare for selection criteria and ownership of resources, confirm service policies, and implement a integrated library management and access system. It is emphasized that a cooperative storage facility for academic libraries in Korea should ensure the optimum use of space on campus, preserve “the last copy” which is not frequently used, but still has scholarly values, and extend the effective and efficient resource sharing among participating libraries.

Key Words: Academic Libraries, Cooperative Storage Facilities, Resource Sharing and Preservation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jade@cju.ac.kr) (제1저자)

** 아이리스넷(shim@irisnet.co.kr) (공동저자)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kwackdc@cju.ac.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7년 7월 25일 • 최초심사일: 2007년 8월 3일 • 최종심사일: 2007년 9월 21일

I.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대학도서관들이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도서관 예산의 축소, 학생 수의 증가와 구성의 변화에 따른 도서관 역할의 변화, 새로운 이용자층의 증대와 요구의 변화, 도서관 컬렉션 속성의 변화, 정보기술 발전의 영향, 도서관 자료가격의 급등과 도서관 구매력 감소 등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전체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라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대학도서관들 사이의 자원 공유와 접근제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학술잡지출판사나 벤더 등과 같은 외부의 정보제공자들에게 대한 협상력을 증대시키며, 이용자 중심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다각화함으로써 교수, 학생, 교직원 등의 기존 이용자층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등과의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려고 시도하는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영국이나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개발,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이를 지원하는 대학도서관의 정보자원 입수와 활용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공유정책을 수립하고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들 가운데 특히 정보자원의 활용과 서비스의 증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는 대학도서관 재정, 공간, 시설, 인적 자원이 제한되고, 컬렉션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해가는 상황에서 교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부”를 보존하고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자원 공유 및 비용 효과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여러 대학도서관들이 공통으로 갖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축 및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²⁾ 물론 다양한 유형의 공동보존서고들이 있고, 그 구축 목표나 운영방식 또한 다소 상이한 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자원의 공동보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찍이 대학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공동보존서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³⁾ 실제적인 공동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1) 박동철, 김기태, 윤정옥,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의 분석: 미국, 영국, 호주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권 1호(2006), pp.3-28.

2) 박동철, 심경, 윤정옥, “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권 2호(2007), pp.51-78.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지적된 것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현재 직면한 문제는 대학도서관의 자료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데 비하여 도서관 시설 및 공간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한정된 공간을 갖는 도서관 내에서 소장자료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가 적절히 자료를 열람 및 활용하고 다양한 관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그런 한편으로 도서관 시설 및 공간의 편의성과 안락성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또한 증대하면서, 자료 규모에 비례하여 서가공간을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다른 용도의 공간을 전용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도서관 예산과 캠퍼스 내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도서관의 신축이나 개축 혹은 이전 등을 쉽게 추진할 수도 없고, 따라서 우선적으로 불용자료나 저이용자료의 폐기, 이관 등으로 기존 도서관 시설내의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통의 목표와 이해관계를 갖는 여러 도서관이 함께 이관된 자료의 공동보존과 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 대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전제 하에 이 연구는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모형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전의 연구에서 다른 나라의 주요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구축과 운영의 사례를 포괄적, 심층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고,⁶⁾ 이를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공동보존서고 구축 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참조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내용적으로 미국, 호주 및 스코틀랜드의 아홉 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주요한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전 연구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발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고유한 환경에 적합한 공동보존서고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반 조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종 연구논문, 보고서, 백서, 정책제안서 등의 문헌을 조사하였다. 또한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에 관련된 여러 국가, 단체, 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된 각종 통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가 갖추어야 할 물리적 시설,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자료의 소유권,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3) 박동철, 윤정옥, 김기태, 대학도서관 정책 로드맵에 관한 연구(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5).

4) 박동철, 심경, 윤정옥의 연구(2006)에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대학도서관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46개의 응답기관들 가운데 30개의 도서관이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였다. 설문에서 응답기관들로 하여금 응답을 개방형으로 서술하도록 하였으므로, 개별 기관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공간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치로 제시하기보다, 그 같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5) 박동철, 심경, 윤정옥, "대학도서관의 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과 국가대출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신청서(2006. 5. 19) 및 2006 대학 e-Campus 대회 발표원고(부산: BEXCO, 2006. 6. 21-22).

6) 박동철, 심경, 윤정옥, 2007, 전계논문.

II. 해외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상의 특성

이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도해 온 다른 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구축과 운영에서 집적된 경험이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따라서 주요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들 가운데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Five College Library Depository와 캘리포니아주의 Regional Library Facilities, 콜로라도주의 PASCAL 등 여섯 개의 공동보존서고, 호주의 CARM Centre,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CASS 보존서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각각에 대하여 운영주체, 참여기관의 규모와 특성, 소장자료의 성격과 규모, 자료의 소유권,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자료 관리와 접근 시스템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FCLD(Five College Library Depository)

매사추세츠주의 FCLD는 참여기관인 앰허스트대학, 햄프셔대학, 마운트홀리요크대학, 스미쓰대학, 및 앰허스트소재 매사추세츠주립대학(이하 UM이라 부름)의 컨소시엄인 Five Colleges, Inc.가 운영을 맡고 있다. 앰허스트대학의 지하병커에 50만권 소장 가능한 고밀도저장서고로 구축하여, 인쇄자료를 중심으로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을 보존하고 있다. 소장자료는 UM 컬렉션과 4개 대학 공동 컬렉션을 분리하여 유지하고, 전자는 UM 소유로, 후자는 공동소유로 한다.⁷⁾ 시설 내 이용에 개방적 정책을 유지하며, UM과 앰허스트대학이 연방기탁도서관이므로 열람실을 회원 외 일반대중에게도 공개한다. 대출 및 원문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와 접근을 위해 컨소시엄 공동목록인 Five Colleges Libraries Catalog과 공용 통합도서관 시스템을 사용한다. 회원대학이 컬렉션 규모 비율로 운영비용을 분담한다.

2.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SRLF(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캘리포니아주의 SRLF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niv. of California) 시스템이 운영하며,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UCLA, UCI, UCSD, UCR, UCSB 5개 캠퍼스 도서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건물은 로스앤젤레스 UCLA 캠퍼스내 고밀도 보존서고에 모바일 밀집서가를 사용, 6백만권 소장 가능한 규모이며, 별도의 필름보존용 냉장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단행본, 고문서/아카이브, 정기간행물, 마이크로폼, 신문, 기타 특수컬렉션, 사진 네거티브 및 정부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보

7) Bridegam, Willis E. "Print Preservation at the Local Level -- The Five College Experience." *Library Collections, Acquisitions, & Technical Services* 28(2004), pp.29-38.

존하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공동소유 컬렉션 및 기탁도서관의 개별소유 컬렉션으로 나누어진다. 이 시설은 보존서고 및 전문보존시설의 역할을 하며, 전문적인 보존 이미징 서비스(각종 인쇄자료의 아카이브 디지털화 및 리포매팅), UC/JSTOR 프로젝트, 열람, 대출, 원문제공 등을 한다. 관리와 접근을 위해서는 UC 종합목록 MELVYL과 개별도서관 OPAC을 사용하고, 시설 전용 관리를 위해 상용 통합도서관자동화시스템(Voyager)을 사용한다. 재정과 비용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이 담당한다.⁸⁾

3. 미국 콜로라도주의 PASCAL

(Preservation and Access Service Center for Colorado Academic Libraries)

콜로라도주의 PASCAL은 보울더 소재 콜로라도대학, 덴버 소재 콜로라도대학과 콜로라도보건학 센터(UH/UCDHSC), 펜로즈 소재 덴버대학 및 덴버대학법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이다. 시설은 UH/UCDHSC의 Fitzsimons 캠퍼스 내 창고형 고밀도서고에 160만권 소장 가능하도록 구축하였고, “자료성격 가치가 있으나 수요가 낮은 오래된 연구자료”인 인쇄본의 “마지막 카피(the last copy)”를 소장한다. 연속간행물은 단일 카피의 공동소유(joint retention)로 개별 도서관내 중복을 제거하고, 단행본의 “단일카피”는 각 도서관마다 한 카피를 인정하여 최대 4 카피까지 서고에 보존하는 것으로 하였다. 대출과 열람이 가능하고, 외부기관에는 ILL로 대출 및 원문을 제공한다.⁹⁾ 콜로라도 연구도서관 협의기구(Colorado Alliance of Research Libraries)의 종합목록인 Prospector 및 개별도서관 OPAC으로 접근할 수 있다.

4. 미국 뉴저지주의 ReCAP(Research Library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뉴저지주의 ReCAP은 컬럼비아 대학, 뉴욕공공도서관 및 프린스턴 대학이 참여하고, 프린스턴 대학의 포리스탈 캠퍼스(Forrestal Campus)내에 700만권 소장 가능, 3,750만권 소장으로 확장 가능한 고밀도보존서고로 구축되었다. 3개의 창고모듈, 필름자료용 냉장실로 구성되었고, 인쇄자료 중심이지만, 단행본, 고문서/아카이브, 정기간행물, 마이크로폼, 신문, 기타 특수 컬렉션, 실물자료, 필름네거티브 등 다양한 매체 컬렉션을 허용한다. 3개 기관이 각자 별도의 공간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컬렉션 소유권을 갖는다. 이 시설은 창고 기능에 치중하며, 공동인벤토리 및 대출제어 시스템(Library ARchival System(LAS))을 사용하지만, 공동목록은 없고, 개별 도서관 목록에서 소재

8) UCLA. Nov. 1995. rev. “Sou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 Statement of Operating Principles: Outline.” <http://www.srlf.ucla.edu/Deposit/OpPrinciples/OperatingPrinciples.htm> [cited 2006. 9. 13]

9) Seaman, Scott, “Collaborative Collection Management in a High-Density Storage Facil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Vol.66, No.1(2005), pp.20-27.

정보를 제공한다. 비용은 3개 기관이 분담한다.¹⁰⁾

5. 미국 오하이오주의 NORBD(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오하이오주의 NORBD는 오하이오메디컬대학, 톨리도대학 및 보울링그린주립대학을 위한 창고형 고밀도 보존서고로 180만 권을 소장할 수 있다.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고, 중요하지만 잘 이용되지 않는 인쇄자료 중심이지만, 도서, 연속간행물, 악보, 음악녹음자료, 아카이브, 마이크로피시, 마이크로카드, 마이크로필름, 신문, 정부문서 및 멀티미디어 등도 수용한다. 공동장서개발이나 공동소유 개념은 아직 채택하지 않았고, 인쇄본 정기간행물 중복 제거 프로젝트를 최근에 시작했다.¹¹⁾ 열람, 대출 및 원문제공서비스를 제공하며, OhioLINK의 정기적 자료배달 서비스를 이용한다. 개별 도서관 OPAC 및 OhioLINK로 접근 가능하고, 오하이오주의 Ohio Board of Regents가 재정을 담당한다.¹²⁾

6. 미국 워싱턴주의 WRLC Storage(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 Storage)

워싱턴주의 WRLC Storage는 워싱턴 연구도서관 컨소시엄이 운영하면서, 조지워싱턴대학, 조지타운대학 등 여덟 개의 이 지역 대학들이 공유하는 시설로 매릴랜드주 멜보로시에 창고형 고밀도 보존서고로 구축되었다. 각 도서관 자체기준으로 선별한 책,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 및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관리와 접근을 위해 WRLC의 공동목록인 ALADIN(CATS)을 이용한다. 컨소시엄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7. 호주의 CARM Centre

호주의 CARM Centre는 빅토리아주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인 Cooperative Action by Victorian Academic Libraries(CAVAL), Ltd.가 운영을 맡고 있는 고밀도 보존서고로 빅토리아대학, 디킨대학, 라트로브대학 등 열개의 대학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¹³⁾ 서고는 현재 100만권 소장 가

-
- 10) Princeton University. 2002. "ReCAP: The Research Library Collections and Preservation Consortium." <<http://recap1.princeton.edu/about/general.html>> [cited 2006. 10. 31]
- 11) Kemp, Rebecca. 2006. "List of Cooperative Print Endeavors, with Brief Summaries." <<http://library.uncw.edu/web/faculty/kempr/JSTOR-cooperative-print-endeavors.doc>> [cited 2006. 12. 10]
- 12)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Library. 2006. "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Information." <<http://www.bgsu.edu/colleges/library/remote/info.html>> [cited 2006. 12. 10]
- 13) CAVAL. 2006. CAVAL "Annual Report 2005. Bundoora, Victoria, Australia: CAVAL, Ltd." <<http://www.caval.edu.au/about/2005AnnualReport.pdf>> [cited 2006. 12. 11]

능한 규모이나 200만권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가치가 있으나 잘 이용되지 않는 아카이벌 및 연구 자료의 마지막 카피(last copies of valuable but low-usage archival and research materials)”로 정의된, 물리적으로 양호한 인쇄자료를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다. 비책자매체도 일부 소장하고 있으며, “단 하나의 양호한 품질의 자료 카피(단행본의 판)(a single good quality item copy(edition for monographs))”를 공동소유하거나 장기대출하는 방식으로 보존 및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행본은 도서관과 기관에 대출하고, 정기간행물은 보통 시설 내에서만 이용하거나 원문제공서비스로 제공한다. 관리와 접근은 CARM Centre 목록인 ALEPH Web OPAC, 호주 국가서지 데이터베이스(NBD, Kinetica 시스템) 및 CAVAL 종합목록 COOLCAT을 통해 가능하다. 참여도서관들은 시설 건축비를 분담하고 서가공간을 할당 받았으며, 비컨소시엄 도서관은 서가를 대여하고 대출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다.¹⁴⁾

8. 스코틀랜드의 CASS(Collaborative Academic Store for Scotland)

스코틀랜드의 CASS는 스코틀랜드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Scotland, NLS)과 스코틀랜드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Scottish Confederation of University and Research Libraries, SCURL), 그리고 에딘버러 대학, 글래스고우 칼레도니언 대학 등 6개 대학도서관이 사용하는 보존시설로서 에딘버러시의 사이트힐에 소재한 NLS 커즈웨이사이드 건물에 설치되어 있다. 공간절약형 밀집서가(Ecospace compact mobile)에 스코틀랜드 대학도서관들에 소장된, 가치가 있지만 이용률이 낮은(valuable but low use) 자료의 단일인쇄본, 즉 “The Scottish Copy”를 보존한다. 이들 참여 대학도서관이 공동소유권을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카네기멜론 재단 지원금으로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상태이다. 대출 및 전자파일 혹은 우편을 이용한 원문제공 서비스가 가능하고, Endeavor Information Systems Inc.의 Voyager 기반 CASS 목록을 사용하고 있다.¹⁵⁾

Ⅲ.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모형 제안

앞 장에서 간략히 살펴본 다른 나라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 규모,

14) CARM Centre. 2006. “Collection and Services Policy Manual.” “2.2 Ownership.”

〈[http://caval.edu.acu/carm/pst/cspm/Collection and Services Policy Manual.pdf](http://caval.edu.acu/carm/pst/cspm/Collection%20and%20Services%20Policy%20Manual.pdf)〉 [cited 2006. 11. 20]

15) Nicholson, Catherine. 2004. “CASS: Collaborative Academic Store for Scotland Pilot.”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pository Libraries, KUPIO-2, Kupio, Finland, 13-15 5, 2004.

〈<http://www.nrl.fi/kuopio2/abstracts.htm>〉 Power Point Presentation [cited 2006. 6. 6]

재원조달 및 운영방식을 갖고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 면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들의 물리적 시설 건축 및 관리와 운영, 서비스 상의 제반 특성들을 참조로 할 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목표를 설정한 이후, 실제적인 부지의 선정, 고밀도 저장시설을 위한 목적용 건물의 신축, 시설·장비의 구입과 유지관리, 참여기관과 운영주체의 성격, 비용의 분담, 자료소유권, 자료관리와 접근 시스템의 구축 등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어떤 형태의 시설을 세울 것인가? 어떤 규모와 성격의 대학들이 참여하며, 몇 개의 대학이 참여할 것인가? 운영과 재정지원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보존대상 자료의 규모와 성격, 자료의 소유권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보존서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자의 범주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자료 관리와 이용을 위한 접근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구축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안해 보도록 한다.

1. 공동보존서고 구축의 목표와 형태

앞에서 살펴본 다른 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들이 공통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교내 공간의 최적의 활용성 보장, “마지막 한 부”의 보존, 보존시설 및 운영 비즈니스 모델의 정립 및 보존자료의 이용 효율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이 같은 목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역시 지향할 바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공동보존서고의 형태는 재정적 측면에서는 국가가 주관하는 국가보존도서관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며, 대상 소장자료의 선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조합형 보존서고(Cooperative Storage)의 특징을 수용하고, 운영적 측면에서는 협력형 보존서고(Collaborative Storage)의 특징을 혼합한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공동보존서고의 구축을 위한 재정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소장대상 자료의 선정은 참여도서관들이 결정하여 공동보존서고의 공간을 할당받도록 하며, 소장된 자료에 대한 이용을 포함한 운영은 협력형 보존서고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다. 참여도서관 간의 공동이용을 보장하되 점차적으로 협의된 장서관리정책을 수립하여 중복된 자료에 대하여는 ‘마지막 한 부’를 보존하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도서관 또는 서비스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는 전국적 규모보다는 지역, 권역별로 공동보존서고를 구축하여, 점차 그 규모와 참여기관의 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물리적 시설

가. 목적용 건물의 신축

대학도서관이 서고 공간부족으로 인하여 2차 저장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우선 대상 부지

16) 박동철, 심경, 윤정옥, 2007. 전개논문.

확보와 서고 신축을 위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이는 새로운 도서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적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구축하는 주체는 여전히 예산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규 부지와 건축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사용하거나 폐쇄된 건축물을 저가로 매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과거에 시도되었다.

전자의 예로는 국내에서 1970년 7월에 남산 어린이회관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사용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1974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1988년까지 14년 동안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층건물은 도서관장서의 주류를 이루는 인쇄본 자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는 비용이 적지 않았고 궁극적으로는 건물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열람실 공간을 많이 할애하는 일반 도서관의 용도로 사용해도 건물에 하중부하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로 밀집된 서가를 사용하는 보존서고는 단위 면적당 하중이 더 클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 특히 다층건물의 재활용은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물론 이것은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아니었지만, 관중이 무엇이든 일단 다른 용도로 지어진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실에 대한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보존서고로 사용하는 경우로 미국 오하이오주 다섯 개 대학의 컨소시엄인 Five Colleges of Ohio가 운영하는 공동보존서고인 CONStor¹⁷⁾는 이전 뉴웁 공공도서관 건물을 임대하여 보존서고로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보존서고는 그래도 이 건물이 이전에 카네기도서관 용도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하중이나 구조 등의 면에서 보존서고로 사용하는 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공간을 확장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후자의 예로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FCLD를 들 수 있다. 이 보존서고의 경우는 앰허스트대학이 도서관 증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시 증축예산의 1/57에 해당되는 지역 내 매물로 나온 미국전략공군기지의 지하벙커를 리모델링한 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존서고에 심각한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들과 같은 형태의 보존서고는 처음부터 목적용(purpose-built)으로 건축된 시설들이 갖는 확장가능성을 쉽게 갖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기도 한다는 예를 보여준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적으로 컬렉션 저장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위해 부지를 선정하고 목적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보다 최근에 건축된 여러 개의 새로운 보존서고들은 고밀도 및 중밀도 저장시설로서 구축되고 있는 한편, 고밀도 공동보존서고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모듈러 시스템으로 건물을 신축한다. 초기 투입 비용이 기존 건물이나 시설을 고밀

17) CONStor: 오하이오주의 뉴워크(Newark)에 있는 CONStor는 College of Wooster, Denison University, Kenyon College, Ohio Wesleyan University, 및 Oberlin College라는 다섯 개 대학의 컨소시엄인 Five Colleges of Ohio, Inc.,의 후원으로 세워진 보존서고이다.

도, 환경 통제된 저장시설로 개축 혹은 변경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보다 다소 많을 가능성은 있으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하고, 모듈 확장에 따른 추가적 비용 투입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역시 처음부터 목적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나. 고밀도 저장시설의 구축

목적용 신축은 건물에 배치되는 서가의 형태에 따라 설계가 크게 달라진다. 보존서고에 주로 사용되는 서가의 형태는 고밀도서가(high-density shelving)로 고밀도서가란 바닥면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저장서가를 의미하며, 종종 밀집서가(compact shelving)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모바일서가(mobile shelving), 로타리식 파일 보관함(rotary file)과 창고형 고층서가(high-density storage)가 있다. 이 중 보존서고에 주로 채택되는 형태는 모바일서가와 창고형 고층서가 있다.

모바일 밀집서가는 천정높이가 일반 건물에 준하는 보존서고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는 수동식과 전동식이 있으며 일반서가를 배치하였을 때 소요되는 바닥공간의 1/2을 차지한다. 전동식은 일견 위험해 보이나 서가가 움직이는 속도가 아주 느리며 또한 서가가 움직이는 도중 장애물을 인식하면 정지하여 이용자가 다치는 경우는 없다. 이와 같은 형태의 밀집서가를 배치할 경우, 서고건물의 하중부하를 철저히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창고형 고층서가는 자동과 수동방식이 있으며 바코드가 부착된 자료들이 청구번호가 아닌 크기별로 보관함에 담겨 보존된다. 자동방식 창고형 고층서가는 약 15미터 높이까지 구축할 수 있으며 자료는 로봇에 의하여 찾아지고 모든 자료는 5분 내에 찾는 것이 가능하다. 이 서가구조는 바닥면적 대비 공간 활용율은 전통적 서가와 비교하여 약 7배에 이른다.

수동식 창고형 고층서가는 약 9미터 정도의 고정된 서가로 구성되며 자동방식과 유사하게 자료의 크기별로 보관함에 담겨 소장된다. 이는 자료를 배가하고 찾는 것은 “order picker”라고 불리는 포크리프트를 변형한 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이 직접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자료를 찾는 데 드는 소요시간은 6~60시간까지에 이른다. 하지만 60시간은 주말연휴를 감안한 시간이므로 대략 6시간가량 걸리는 것으로 이는 한 자료의 검색보다는 한 사이클을 의미한다. 이 서가의 바닥면적 대비 공간활용율은 전통적 서가와 비교하여 약 6배로 더 높은 구조를 가지는 자동식보다는 공간효율이 조금 낮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버드대학도서관의 고밀도 저장서고(Harvard Depository)가 있으며 이 고밀도 보존서고는 상업적 창고(warehouse)와 유사한 건물구조를 가지고, 고밀도 선반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공간(space)과 보존(preservation)의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최근 여러 도서관의 건축사례에 근거하여 계산한 고밀도 보존서고의 건축비용은 권당 3.75달러로, 통상적인 캠퍼스 도서관 건축에서 권당 13.39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될 수 있

다.¹⁸⁾ 이 같은 비용의 비율이 반드시 모든 환경에서 동등하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자료의 보존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밀집서가와 창고형 고밀도서가는 바닥면적 대비 공간 활용 비율 측면에서는 후자가 훨씬 뛰어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부지 구매비용이 높은 조건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창고형 보존서고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비용을 철저히 산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고밀도서가와 유인 리프트 및 제어시스템은 국내에서 구매가 불가하여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층 건물에 밀집서가를 배열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다. 환경제어와 설비

목적용으로 신축된 주요한 고밀도 보존서고들이 공통적으로 시설, 장비 및 환경설정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 정리, 목록과 보존과 같은 부수적 활동 및 캠퍼스 도서관들이 전형적으로 제공하는 학습과 교육공간과 같은 시설에는 최소한도의 공간만을 할당하는 동시에, 시설 내 사람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자료에 최적한 고도의 보안 및 환경제어 시스템을 보다 경제적이고 용이하게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한 부'를 보존하는 정책을 채택할 경우 자료보존을 위하여 필수적 요소이다. 환경제어를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 온도: 연중 평균 화씨 55도(PASCAL), 겨울: 50도, 여름: 65도로 조정(NORBD)
- 습도: 연중 35% 상대습도(PASCAL), 겨울: 40%, 여름: 60%로 상대습도 조정(NORBD)
- 조명: 조도가 낮은 고압 나트륨 조명 사용
- 자료의 습기제거 및 방충, 다중 방화 및 보안 시스템 설치

3. 보존서고의 공간 규모와 수용능력

공동보존서고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할 요소 가운데 하나는 물리적 시설의 규모이다. 다음의 <표 1>은 Reilly, Jr.가 미국의 주요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장서규모 등을 조사한 결과¹⁹⁾에 기반하여 구성한 것으로, 각 공동보존서고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서관 시스템 혹은 컨소시엄의 전체 장서규모에 대비한 수용능력, 현재 보유현황, 확장가능 장서규모, 및 현재 사용공간의 비율을 보여준다. 마지막 컬럼의 전체 장서 수용능력은 이 연구를 위하여, 전체 도서관장서 대비 수용능력 권수를 계산한 수치이다.

18) Murray-Rust, Catherine. "High Density Storage for Libraries."
 <<http://libweb.uoregon.edu/orbis/rlsc/Storage.html>> [cited 2006. 12. 10]

19) Reilly, Jr., Bernard E. 2003. *Developing Print Repositories: Models for Shared Preservation and Access*. Council on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http://www.clir.org/PUBS/reports/pub117/contents.html>> [cited 2006. 12. 10]

〈표 1〉 보존서고 시설의 수용능력 및 보유현황

보존서고명	전체 도서관 장서(권)	수용능력(권)	현재 보유(권)	확장가능	현재 사용 공간 비율(%)	전체 장서/ 수용능력(%) ²⁰⁾
FCLD	6.2백만	0.5백만	0.102백만	1백만	20	8.0
CONStor	3.73백만	0.2백만	0.021백만	.25백만	6	5.4
SRLF	17.5백만	7백만	4.5백만	9.3백만	78	40.0
NRLF	15.1백만	5.45백만	5.45백만	18백만	100	36.1
Duke LSC	5백만	2.5백만	1.25백만	10백만	50	50.0
ReCAP	21.8백만	6.5백만	2.7백만	35백만	26	29.8
SWORD	5.22백만	2.2백만	1.47백만	4.8백만	67	42.1
WRLC	8백만	1백만	0.89백만	3백만	90	12.5

〈표 1〉에 포함된 공동보존서고 가운데 이 연구의 앞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지 않은 시설들이 몇 개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Southwest Ohio Regional Depository(SWORD)는 오하이오주 미들타운(Middletown)에 소재한 것으로 오하이오주가 재정지원하는 다섯 개의 지역 보존서고들 가운데 하나이다. SWORD는 마이애미대학, 라이트주립대학, 신시내티대학 및 센트럴주립대학을 위한 시설이다. 한편 NRLF(Northern Regional Library Facility)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를 비롯하여 다섯 개의 북부 캘리포니아지역 UC 대학도서관을 위한 보존서고이다. Library Service Center(LSC)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더랩에 소재한 보존서고이다. LSC는 2001년 듀크대학이 처음 구축하였고, 이 대학교의 퍼킨스 도서관 시스템(Perkins Library system)의 일곱 개 도서관과 비즈니스, 신학, 법학 및 의학대학원의 도서관들의 캠퍼스 외부 저장고역할을 한다. 듀크대학에서 원래 계획한 바에 따르면, 이 시설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연구단지(Research Triangle)에 있는 다른 대학들을 위해서도 저장공간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마련되었고, 현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만이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여러 기관이 공유하는 보존서고로서의 역할은 아직도 크게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다.

〈표 1〉에서 FCLD의 예를 들면, 도서관 전체 장서규모가 2002년 당시 629만권에 이르는데, FCLD가 50만권을 현재 수용할 수 있으므로, 전체 장서의 8%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보존서고에 당시 보유된 자료 수는 십만 권을 약간 웃도는 수치로, 사용가능한 공간을 20%만 점유하고 있었다. 이 공간은 또한 백만 권을 수용하도록 확장될 수 있으므로, 차후에 공간 사용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매년 각 도서관의 규모가 증대하고, 보존서고의 공간 자체를 확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장서 수용능력은 변동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 살펴본 공동보존서고들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규모와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 장서규모에 대비한 보존서고의 수용능력은 적게는 5.4%(소규모의 CONStor)

20) Reilly, Jr.의 표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위해 따로 산출한 것임.

에서부터 많게는 50%(Duke LSC)에 이른다. 그러나 대체로 SRLF, NRLF와 ReCAP처럼 전체 장서규모가 큰 보존서고가 수용능력을 30-40% 범위에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권역별로 설치한다고 하면, 각 권역에서 참여할 대학도서관의 총수, 합산된 총 장서규모 및 연간 장서 증가폭을 먼저 평가하고, 공동보존서고 완공 시점에 전체 장서 대비 보존서고 수용능력이 30% 정도 될 수 있도록 보존서고의 물리적 시설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4. 소장자료의 선정과 관리

공동보존서고의 물리적 시설과 그 규모, 그리고 환경설비가 결정되면 소장할 자료의 매체종류를 이관 받은 후 관리와 연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보존서고의 면적뿐만 아니라 환경설비와도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

가. 소장자료의 성격과 종류

다른 나라 공동보존서고들의 소장자료를 보면 대체로 인쇄자료 중심이고, 모두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은 소장하고 있으나, 그 밖의 형태의 자료들은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NRLF, SRLF, ReCAP, 및 WRLC와 같이 회원도서관들의 전체 장서규모가 큰 보존서고들은 단행본, 정기간행물, 고문서/아카이브, 신문 및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하여 다양한 매체를 수용하고 있고, 필름, 음반자료, 실물자료까지 소장하는 경우도 보인다. CONSTor나 FCLD처럼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동보존서고들은 인쇄자료를 중심으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쇄자료 이외의 다양한 매체를 수용하게 되면 공동보존서고의 시설 면에서도 추가의 공간 배정과 환경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ReCAP에서도 필름을 소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필름저장고(film vault)를 만들어, 시설 내 다른 부분보다 복잡한 방화시스템을 설치하고, 온도는 항상 화씨 3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SRLF처럼 텔레비전 및 필름아카이브의 특수컬렉션을 전담해서 보존하는 책임을 맡은 경우에도 이러한 컬렉션을 위한 전용공간 및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을 갖고 경제적인 고밀도 보존서고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처럼 추가의 비용부담이 요구되는, 다른 매체를 위한 별도의 공간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소장자료는 현 단계에서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및 학위논문, 보고서와 같은 회색문헌을 포함하여 인쇄자료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도서관의 통합 자동화시스템에서 각 자료의 대출 이력과 통계를 추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대출 또는 관내이용의 기록이 전혀 없거나 일정빈도 이하인 보존서고 소장 대상 자료로 선정하고 이관하도록 한다. 상세한 자료선정의 기준은 각 권역에 소재한 대학도서관

관 컬렉션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복수의 권역별 공동보존서고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과 권역별로 적용시킬 세부기준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반적 기준으로는 다른 나라 보존서고 소장자료 선정기준²¹⁾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시켜 각 도서관의 이관대상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지난 몇 년 동안 대출이나 관내 이용 빈도가 몇 회 이하로 나타난 이용자료
- 다른 포맷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전자저널의 인쇄버전)
- 새로운 판이나 버전으로 개정된 자료

나. 소장자료의 소유권

공동보존서고의 구축 및 운영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논쟁의 소지가 많은 문제가 바로 소장자료의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ReCAP과 같이 세 개의 도서관이 공동보존서고의 공간만을 공유할 뿐, 각기 별도의 정책과 기준을 갖고 운영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한 개별 기관의 것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공동보존서고들이 그렇듯이, 자원공유의 목표를 갖고 공동의 장서개발 및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도서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다. 더욱이 PASCAL처럼 중복된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단일 카피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외부 이용자에게까지 대출하는 자료로 개방해 놓았을 경우에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자료의 유일성과 이용가능성까지를 고려하여 소유권의 주체가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 혹은 권역별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에는 “단 하나의 마지막 카피”를 소장하고, 동일한 자료의 카피를 가졌던 참여도서관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개별 도서관에서 공동보존서고에 맨 첫 번째로 이관한 카피를 일단 소장하고, 다른 도서관에서 동일한 자료의 카피를 이관하면, 비교하여 더 상태가 좋은 카피를 소장하도록 한다. 그러면 다른 카피들은 중복으로 간주하고 폐기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대학도서관이 자료의 실물을 갖지 않았어도 이 자료를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고 폐기한 기록을 갖고 있으면, 대학의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이를 대학도서관 통계에 포함시키도록 인정함으로써, 하나의 카피로서 참여도서관들이 실질적으로나 통계상으로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이 같이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에 예를 들어, A지역 공동보존서고에 10만권이 소장되어 있고, 5개의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을 때, 5개의 도서관이 10만권에 대하여 똑같이 공동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별 참여도서관이 기탁한 자료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는다. 만약 B도서관이 3만권을 이관했고, C도서관이 2만권을 이관했는데, 그 가운데 B도서관과 C도서관이 각각 갖고

21)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2006. “Guidelines for Selection of University Libraries’ Materials for Transfer to the 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http://www.bgsu.edu/colleges/library/DepoCriteria.pdf>> [cited 2006. 12. 10]

있던 자료에 1만권의 중복이 있다면, 이 공동보존서고에서 B도서관이 소장했던 카피를 선택하든 C도서관이 소장했던 카피를 선택하든, 둘 중에서 상태가 더 좋은 한 카피만 남게 되지만, 그 특정한 카피에 대해서는 B와 C도서관이 공동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공동보존서고의 단일 카피 소장, 중복 카피 제거 및 공동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 및 대학종합평가를 담당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은 평가주체가 개별도서관이 실물을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평가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별도의 평가항목, 예를 들어 '공동보존서고 참여 정도'와 같은 항목을 만들어서, 적절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다.

5. 시설 및 자료의 이용과 서비스

공동보존서고는 단순히 자주 이용되지 않는 자료의 소장 또는 보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소장된 자료의 보존은 물론 이용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서는 참여도서관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수행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공동보존서고에서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장된 자료의 이용을 위한 상호대차/원문제공, 참여도서관을 위한 정리업무, 이관된 자료의 마이크로필름 작업과 디지털 변환작업 등을 포함한 보존업무 및 연구이다. 대부분 전적으로 컬렉션의 수장고 역할을 하는 보존서고들은 참여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상호대차/원문제공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되, 외부의 이용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ReCAP처럼 모든 이관자료의 정리를 개별도서관에서 완료한 후, 보존서고에서는 문자 그대로 보존의 기능만을 제공한다. 한편 SRLF처럼 단순한 보존서고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에서는 정리, 보존, 연구, 마이크로필름 작업과 디지털 변환작업과 같이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보존관련 업무들을 하고 있다.

<표 2> 보존서고 시설 내 제공 부가서비스

보존서고	ILL/DD (권소사업 외부)	ILL/DD (권소사업 내부)	정리	보존	연구 시설	마이크로 필름 작업	디지털 변환
Five Colleges		o	o		o		
CONStor		o			n		
SRLF	o	o	o	o	o	o	o
NRLF	o	o	o		o		
Duke LSC	o	o	o		o		
ReCAP		o			o		
SWORD	o	o			o		
WRLC	o	o	o		o		

아울러, 시설 내에서 일반이용자의 열람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열람을 허용

하지 않을 경우, 단행본과 같은 자료를 외부로 대출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자료제공기간(turnaround time)도 설정되어야 한다. 보통은 자료요청 이후 최대한 48시간 내에 자료를 이용자 소속도서관까지 배달해 주는 것이 관행이다. 그리고 대출기간을 정할 때에도 이 배달과 반환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는 상호대차와 원문제공을 기본적인 서비스로 하고, 연구목적 을 갖는 대학원생 이상의 참여도서관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 해서 열람공간이 할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장자료의 특성 상 이용빈도가 많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공간의 크기는 전체 보존서고 면적에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정기간행물의 논문이나 단행본의 일부 등을 원문제공하기 위하여 복사기, 팩스 등을 비치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ARIEL과 같이 전자파일 형태로 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한다. 그럴 경우, 원문제공을 위한 저작권을 다루는 문제 또한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두어야 한다.

6. 건축 방식 및 예산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부지로 선정하여 시설물을 건축한다고 가정하고, 예산확보와 관련된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정부의 민간투자지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별, 권역별 공동보존서고를 설치 및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먼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으로서,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도로와 철도 등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외에 BTL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 대상 시설을 기숙사·도서관 등 9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동보존서고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한 후 이 방식을 적용하여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동보존서고의 부지는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매입하기보다는 지역별, 권역별로 도심이나 비교적 교통이 좋은 근교에 위치한 초·중·고교의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1982년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의가 처음 시작된 후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 남겨진 폐교 수는 지난 2006년 3월말까지 모두 3,070개교로 이중 매각·철거 등으로 처리, 종결된 곳이 1,346개교, 종교 및 복지·공장시설로 임대된 곳이 1,008개교이며,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된 곳은 447개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전남·경북·경남·충북·충남이 두드러지고, 2009년까지 전국 676개 학교가 통폐합될 예정이어서 폐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²²⁾ 따라서 이들 가운데 적합한 폐교를 부지로 확보하고, 그곳에 새로운 목적용 보존서고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22) 경향신문, 2006. 11. 9.

또한, 정부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해당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나, 지리적으로 중심이 되는 대학, 또는 해당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중심이 되면서 값싼 별도의 부지를 매입한 후 신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여기서 특정 대학의 부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대학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원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단 부지 선정 후 어느 정도 건축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산정하기 위해, 먼저 미국의 주요한 공동보존서고 건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표 3>에서 볼 수 있다. <표 1>에서 살펴본 보존서고의 자료 수용능력에 대비하여 보면, 대체로 초기 건축비는 보존서고의 규모에 비례하여 투입되지만, 소장컬렉션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간 권당 투입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가장 규모가 큰 SRLF와 NRLF가 소장자료 권당 유지비용이 가장 낮은 것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반대로 CONSTor와 같이 규모가 작은 보존서고는 권당 유지비용이 상당히 높다. 더욱이 이 보존서고는 기존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초기의 건축비용은 들지 않았으나, 연간 임대료 등의 부담이 크다.

<표 3> 보존서고 시설 비용과 예산

보존서고	건축비(연도)	비용/권/연 ²³⁾	운영비용/연	FTE 직원
Five Colleges	\$3백만(1992-2001)	\$ 1.61	\$ 165,000	3.0
CONStor	N/A	\$ 2.38	\$ 50,000	1.5
SRLF	\$ 27백만(1987-96)	\$ 0.26	\$ 1,200,000	38.2
NRLF	\$ 17.2백만(1982-90)	\$ 0.17	\$ 900,000	21.5
Duke LSC	\$ 7백만(2000)	\$ 0.33	\$ 414,000	8.0
ReCAP	\$ 24백만(2001)	\$ 0.79	\$ 1,700,000	25.0
SWORD	\$ 4.93백만(1995-2000)	\$ 0.31	\$ 456,000	7.5
WRLC	\$ 5백만(1993)	\$ 0.39	\$ 350,000	5.0

한편 <표 3>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오하이오주의 NORBD는 180만권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첫 번째 모듈을 구축하고, 네 개의 추가모듈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건축 초기에 투입한 비용은 310만 달러에 달하였고, 도서관 저장공간, 서가 및 주요장비를 고려한 소장자료의 권당 비용은 1.72달러 정도였다.²⁴⁾ 그러나 이 비용은 두 번째 모듈이 건축되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는 초기에 투입된 각종 시설과 장비의 비용이 이후의 모듈 추가

23) 연간 권당 소요비용은 시설의 최근 연간 운영비용에서 감가상각비와 부채상환비와 같은 비용을 뺀 액수를 최근 소장 권수로 나누는 단순한 공식에 바탕을 두었다고 한다. 이 같은 비용 산출 방식은 사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시설의 수명주기(life cycle) 단계, 반입된 자료유형, 컨소시엄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에 따라 연간 운영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수치는 단순히 시설 운영의 비용 범위에 대한 광범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만 제공될 뿐임을 Reilly, Jr.은 지적하였다.

24)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Library. 2006. "Northwest Ohio Regional Book Depository. Information." <<http://www.bgsu.edu/colleges/library/remote/info.html>> [cited 2006, 12, 10]

시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혹은 권역별로 가능한 한 대규모의 컬렉션 소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적용' 보존서고를 신축하는 것이 여러 개의 작은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경제적인을 알 수 있다. 그 같은 전제 하에, 먼저 지역별, 권역별 최대 소장 장서량을 책정한 후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시설물로 지을 것을 가정하고, 국내 건축 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공동보존서고의 최대 소장 장서수를 500만권으로 책정하여, 부지 매입 가격을 제외한 건축비를 개략적으로 분석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공동보존서고의 서고유형별 요구시설 및 개략 건축비

요구시설		모빌랙 폐가서고		고정선반 개가서고		비고
		650원/㎡		250원/㎡		
		㎡	평	㎡	평	
① 서고 시설 면적	서고	7,700	2,300	20,000	6,100	※ 5,000,000권 소장 기준 - ㎡: 십단위 이하 절상 - 평: 십단위 이하 절하 - 1평 = 1㎡×0.3025 - ±5% 범위내 증감발생
	반입·정리실	250	75	250	75	※ 소독실/인쇄실/제본실/공조실 포함 면적
	하역장	150	45	150	45	※ 실내하역장
	소계	8,100	2,420	20,400	6,220	
② 업무 지원 시설 면적	사무실	200	60	200	60	
	관장실	25	7.5	25	7.5	
	회의실	25	7.5	25	7.5	
	자료검색실	200	60	200	60	※ 소장자료 및 정보검색실(정보전산실 겸용)
	휴게실	50	15	50	15	※ 소규모 열람시설 겸용
	숙직·경비관리실	50	15	50	15	
	식당 및 주방	100	30	100	30	※ 직원용
	소계	650	195	650	195	
③ 전용면적		8,750	2,615	21,050	6,415	① + ②
④ 공용 공간 면적	로비·홀·복도·화장실·계단실 등	2,950	890	7,050	2,130	③ ÷ 0.75 ※ 전용면적의 25%
	기계실·전기실·공조실	940	280	2,300	690	⑤ × 0.08 ※ ⑤의 8%
	소계	3,890	1,170	9,350	2,820	
⑤ 건축면적		12,640	3,785	30,400	9,230	③ + ④
※ 추정건축공사비		22,710,000,000원		55,380,000,000원		※ 600만원/평당 적용(정부관급공사 中下수준) ※ 토지매입비 및 서고 설치비/공조설비비용제외
※ 추정서가설치비		4,950,000,000원 - 도서평균두께: 3cm - 도서평균크기: A4 - 총 4,300 복식 SET		※ 모빌랙 서가 설치비용의 40% 수준		

	- 1,163권 / 1 SET - 1,160,000원 / 1SET			
※ 대안별 비교	고정식서가보다 공간절약이 50- 60% 이상 가능하여 건축면적 최소화 가능	기존방식으로 통로공간 등이 과대하게 필요해 건축면적 및 건축공사비의 최대화		
	모빌렉서가 설치비용 추가발생(고가)	고정식서가 설치비용 추가발생(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	도서열람기능이 적은 공간에는 불리		
	적합(조건부)	부적합		
※ 주차대수(지하주차장으로 계획시 추가면적)	43대 1,505	455	102대 3,570	1,080 ※ 주차대수 1대/300㎡ ※ 지하주차장으로 계획시 1대당 35㎡ 필요

〈표 4〉에서 공동보존서고 건축비는 모빌렉 폐가서고와 고정선반 개가 서고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하였다. 여기서 건축비는 정부 관급공사 중하위 수준에 맞춰 산정하였으므로 실제 건축비 예산은 20-30% 추가 소요될 것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공동보존서고를 건축할 때, 처음에 200만권 수용 규모로 건립하고, 연차적으로 300만권, 500만권으로 확장할 것을 고려하면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수 있다. 증축을 위해서는 시설물의 특성상 수평증축형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평증축형은 기존 건물과 수평으로 연결하여 증축하는 형태로 기존 부분과 같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평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존 부분과의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7. 자료 관리와 접근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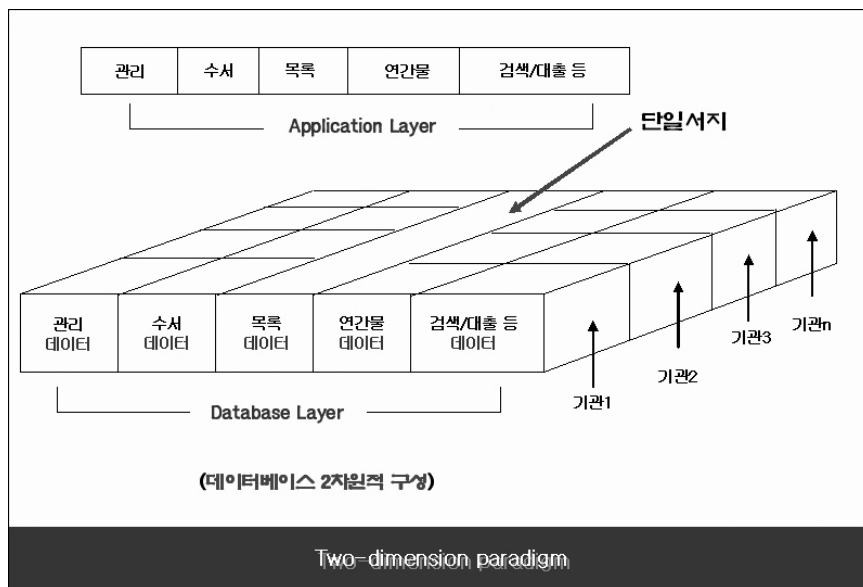
가. 해외 시스템의 분석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주요한 공동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보존서고의 형태, 참여기관의 관중, 그리고 소장자료의 규모와는 무관한 양상을 보인다. 오히려 보존서고의 운영주체와 예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된다.

(1) 해외 시스템 아키텍처: 시스템 구조

앞 장에서 살펴본 다른 나라의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의 검색이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이다: 첫째, 기존의 개별 도서관 시스템을 사용하여 소장처만을 변경하도록 하는 형태, 둘째, 공동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를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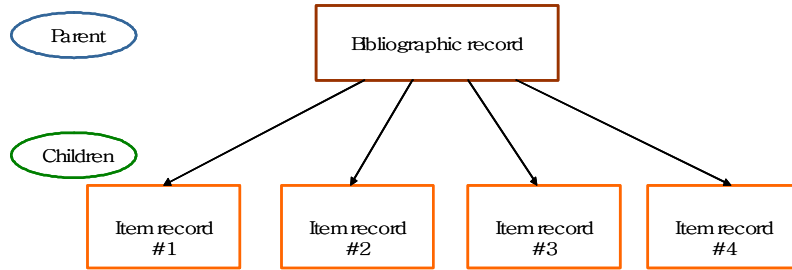
첫 번째 형태의 예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공동보존서고인 SRLF와 NRLF의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 공동보존서고들은 MELVYL이라는 UC 전체의 단일 종합목록 시스템을 통해 10개의 분산된 UC 캠퍼스 도서관들이 소장하는 모든 자료와 더불어 SRLF와 NRLF 자료까지도 찾을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 구조는 국내 도서관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 형태로서, 시스템의 구조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패키지가 다수의 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즉, 검색을 포함하여 사서의 업무처리를 위해 동일한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개별 도서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어 있어, 개별 도서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한편 여러 도서관을 위한 종합목록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이다. 그 이유로 이 구조에서는 <그림 2>에 보인 것처럼 서지레코드와 그에 속한 개별 소장레코드가 하나의 키를 제외하고는 독립된 레코드로서 부모-자식관계를 가지며, 동일서지에 대하여 소장레코드는 얼마든지 추가와 삭제가 가능하며, 내용도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²⁵⁾



<그림 1> 외국 도서관 시스템의 아키텍처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가진 시스템에서는 소장자료를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더라도 소장정보에 소장위치만을 변경하면 된다. 하지만 이관된 자료의 공동보존서고 내에서 관리를 위한 인벤토리시스템(inventory system 또는 library archival system)의 기능을 아울러 수행할 수는 없다.

25) 심 경. “복수도서관을 위한 단일전자도서관 시스템.” 디지털 도서관, 36(2004), pp.23-39.



〈그림 2〉 해외 시스템의 서지레코드와 소장정보 연관구조

스코틀랜드의 CASS 시스템은 MELVYL과 그 구조는 동일하지만, 다른 성격을 지닌다. MELVYL이 UC 대학도서관들의 모든 일반 컬렉션까지 포함하는 종합목록인데 반하여, CASS는 이 보존서고만을 위한 종합목록이며 인벤토리시스템이다. CASS 참여도서관은 각기 개별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관하는 자료의 서지 및 소장정보를 CASS 시스템으로 함께 반출한다. 따라서 이관한 자료는 개별 도서관시스템과 CASS 시스템 두 곳에서 모두 검색이 가능하며, Z39.50 혹은 Endeavor사의 Voyager-to-Voyager 기술을 채택하여 CASS 목록을 자관의 목록과 검색에 통합할 수도 있다.

(2) 해외 시스템 아키텍처: 검색 및 접근

앞에서 설명한 시스템 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존서고 이관자료에 대한 접근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 자관 소장자료를 검색하는 과정 중 원하는 자료가 보존서고에 소장된 사실을 발견하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으며, 둘째, 해당 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검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이관자료의 검색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는가와 무관하게 앞서 기술한 첫 번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주로 보존서고의 내부시스템, 즉 ReCAP의 Library Archival System과 같이 보존서고 내의 자료보존과 서가배열 등 내부적 목적을 위한 시스템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 모두 일단 원하는 자료를 발견하면 검색결과 화면 옆에 마련된 ILL/DDS 버튼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가진다.

결국 보존서고에 소장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사용해 온 '우리도서관 소장자료의 검색'을 위주로 하여 소장처의 변경 사항만을 제공해 주는 방식이 이용자 혼동을 방지하고 기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지원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관시스템에 소장처 변경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혹은 권역별로 도서관들이 사용하는 종합목록이 있다면, 거기에 이를 반영하여 준다면 이용자 편이를 위해서 충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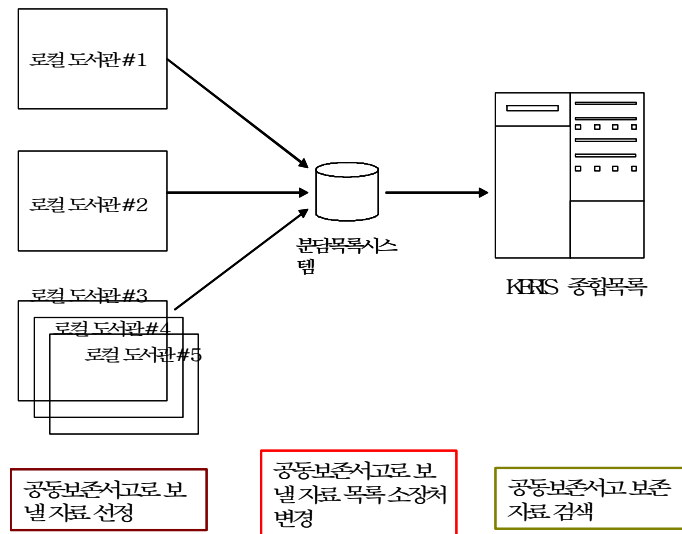
나. 국내 보존서고를 위한 시스템 구조의 제안

해외 사례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보존서고에 소장된 자료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은 보존서고의

내부적 관리용도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자료접근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먼저 이관자료의 검색측면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 뒷부분에 보존서고시스템을 간략히 기술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이관하는 도서관은 자관시스템의 소장정보에 소장처만을 변경해 주는 것으로 이용자 검색을 지원할 수 있다. 국내 도서관자동화시스템은 <그림 2>에 제시한 구조와 같이 서지레코드와 소장레코드 간의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하는 시스템도 있으나, 대다수의 시스템은 서지레코드의 049 필드에 소장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고, 별치된 자료의 위치를 자관시스템에 표현해 주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각 도서관 시스템에서 처리된 이관 자료들에 대한 폭넓은 접근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도서관들이 공유하는 종합목록에도 이 같은 소장정보가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에서는 그 같은 목적으로 KERIS 대학도서관 종합목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별 도서관 시스템에 소장정보 중 소장처를 '보존서고'로 수정하고, 그 내용이 <그림 3>에 보는 바와 같은 분담 목록시스템을 통하여 KERIS 대학도서관 종합목록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국내 공동보존서고 소장본 검색을 위한 KERIS 종합목록 활용

그러나 이와 같은 제안은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이 복본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구현된 KERIS 종합목록 시스템이 갖는 구조적인 제한점 때문에 바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KERIS 종합목록은 10여 년 전에 구축된 것으로 특정한 서지레코드가 단순히 어느 도서관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만 보여주고, 각 도서관의 개별 자료의 소장정보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한 도서관이 한 자료의 복본을 여러 권 가지고 있을 때, 이들 각각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도서관이 5권의 복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중 1권은 자관에 소장하고 다른 4권을 공동보존서고로 이관하기로 한다면 그 내용이 KERIS 종합목록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도서관들이 종합목록이 어느 도서관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만을 알려주는 소극적 목적을 충족시킨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한계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 수도 있다.

다. 국내 보존서고 소장본 검색을 위한 KERIS 종합목록 수정 제안

(1) 기존 소장대학과 현 소장처를 동시에 표시하는 방법

아래 화면은 KERIS 종합목록 검색화면을 공동서고로 이관된 서지항목에 대하여 표현해 줄 방안을 예시한 예이다. 아래 화면은 기존 검색화면에 하나의 필드를 추가하여 해당 서지항목이 '소장대학' 필드에 표시되어있는 대학들이 원래 소장하였으나, 현재는 '공동보존서고'에 소장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장대학들이 KERIS 종합목록에 자신들의 소장사실을 알리고 싶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다. 이러한 화면구성을 위하여 KERIS 종합목록 시스템은 데이터 구조에 하나의 필드를 추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이용자는 '소장대학' 필드와 '소장처' 필드의 관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즉, 이 화면에서 '소장대학' 필드는 자료의 물리적 소장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공동보존서고에 이관되지 않은 다른 서지레코드들에서 검색결과 화면의 '소장대학'은 물리적 소장처와 소유권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상태와 배치될 수도 있다. 또한 아래 레코드에 소장대학으로 열거된 열 세 개 대학의 카피를 모두 공동보존서고로 보낸 것이 아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관에 그대로 카피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

● 상세서지 자료신형				
서명 : 보석글활용 : 보석글2에서 보석글 5까지				
저자	PC연구회			
출판사항	서울 : 크라운출판사, 1991.			
형태사항	250 p. ; 26 cm.			
일반주기명	보석글2와 석글5를 입문에서 활용까지 완전해설			
발행국(발행지)	서울			
자료유형	단행본			
출판년	1991			
소장대학	서라벌대 조선대	서울대(농과) 호남대	순천향대	연세대(원주)
소장대학	건양대 연세대	경주대 출산대	대진대 인하대	부경대
소장처	공동보존서고			

<그림 4> 소장처와 원 소장도서관 병기방식

상세서지		자료신청
서명 : 보석글칼용 :보석글2에서 보석글 5까지		
저자	PC연구회	
출판사항	서울 : 크라운출판사, 1991.	
형태사항	250 p., 26 cm.	
일반주기명	보석글2와 석글5를 입문에서 활용까지 완전해설	
발행국(발행지)	서울	
자료유형	단행본	
출판년	1991	
소장처	공동보존서고	

〈그림 5〉 단일 소장처 제공방식

(2) 현재 소장처만을 표시하는 방법

위에 제시한 방법의 문제점을 해결한 방식은 기존 '소장처' 필드에 소장이 공동보존서고로 변경되었음을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해외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림 5〉 화면은 극단적인 예로 모든 도서관이 다 공동보존서고로 카피를 이관했을 경우를 보여준다. 그리고 '소장처' 필드에서 '공동보존서고'를 클릭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특정한 자료를 갖고 있는 여러 도서관들 가운데 공동보존서고로 자료를 보내지 않고, 그대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현재와 동일하게 '소장대학'이라는 필드 안에 자관의 소장정보를 반영하면 된다. 그러면, 서지레코드의 형태는 앞에서 본 〈그림 4〉와 같을 것이나 그 의미는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방식에서 '소장대학'은 물리적 카피를 소유하는 동시에 소유권도 갖고 있는 도서관들을 의미하게 되고, 물리적 카피를 소유하지 않고 소유권을 갖는 도서관들은 '소장처' 뒤에 숨게 된다.

위에 제시된 어떤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공동서고에 보존되고 있는 카피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싶을 때 모든 자료신청을 공동서고에 직접 하도록 협약을 구성하면 개별도서관은 공간해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보존서고에 보존된 자료에 대한 자료신청과 처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라. 공동보존서고의 내부 관리시스템

공동보존서고에 이관된 장서에 대한 검색 및 신청은 기존 시스템에 소장처만을 변경하고 이용자의 자료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상호대차나 원문제공서비스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제공하면 된다. 문헌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전산화된 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기존 수작업을 사용하거나 공동보존서고에 이관된 자료에 대한 관리는 불가피하다. 또한 공동보존서고에 이관된 자료에 대한 관리는 ReCAP이나 CASS와 같이 전문적 인벤토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기존 도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도서관리시스템의 활용이 바람직한 이유는 기탁된 자료는 MARC라는

표준에 의한 레코드를 구심점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서관리시스템은 이관되는 서지 자료의 서지레코드를 반입할 수 있으며 이관된 자료의 대출 시 기존 대출모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도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탁자료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다. 각 도서관이 기탁자료의 소유권을 영원히 공동보존서고에 넘기는가, 또는 소유권은 가지고 소장처만을 이관하는가에 따라 도서관리시스템의 수서모듈에서 '권한관리'에 대한 사항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한관리에 대한 사항은 Digital Library Federation에서 제시한 "Electronic Resource Management: Report of the DLF Initiative"에 정의된 전자매체의 라이선스 관리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 주요한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다양한 특성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에 적합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가 필요한 이유는 대학의 교육, 학습, 연구, 개발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도서관이 고품질의 새로운 지식정보자원을 보다 신속하게 입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의 소장 장서를 가운데 별무이용도서나 불용도서를 제적·폐기함으로써 소장 장서의 이용 및 대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학도서관들마다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충분히 고급의 지식정보자원을 입수하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부족한 서고 공간 문제로 인하여 기존의 소장자원조차도 적절히 활용하기 어려운 이중고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별이나 권역별 또는 국가 차원의 공동보존서고를 설치·운영해야 할 당위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이미 다양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공동보존서고 사례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공동보존서고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을 제안하였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는 교내 공간의 최적의 활용성을 보장하고, "마지막 한 부"를 보존하며, 보존자료의 이용 효율을 보장하는 시설로 구축되어야 한다.
- 지역별, 권역별로 목표의식을 공유하는 참여도서관을 규합하고, 순차적으로 참여기관을 늘려 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물리적 시설은 보존용으로 환경이 제어되는 목적용 고밀도 저장시설로 신축한다.

- 상호대차와 원문제공을 기본적인 서비스로 하고, 참여도서관 소속의 연구목적용 갖는 대학원생 이상의 시설 이용을 허락하도록 한다.
- 소장자료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및 학위논문, 보고서와 같은 회색문헌을 포함하여 인쇄자료 중심으로 한정한다.
- 소장자료는 각 도서관에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대출 또는 관내이용의 기록이 전혀 없거나 일정빈도 이하인 자료를 선정하여 이관하도록 한다.
- 자료를 이관하는 도서관은 자관시스템의 소장정보에 소장처를 변경하고, KERIS 종합목록과 같은 공유 종합목록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 이관된 자료에 대한 관리는 전문적 인벤토리시스템 혹은 기존 도서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공동보존서고의 설치 및 운영은 국내 모든 대학도서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도서관 건물의 증축·개축·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소장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도서관들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자료구입비로 투자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다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를 적정한 서비스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여기에 참여 또는 협력하는 각각의 대학도서관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거의 이용되지 않는 소장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보존·관리하고, 소장 가치가 없는 자료들은 제적·폐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면서 소장자료의 수치적 증감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장서의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인적 자원의 소모를 줄이는 대신,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의 최신성과 활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해야 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의 설치·운영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유지 및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온 '도서관정보화추진종합계획',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 '국가지식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 '대학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을 포함한 여러 대학도서관 관련 현재 및 향후 사업들에 공동보존서고에 관련된 이념이나 철학을 내재시켜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의 일부로서 집행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와 같은 시설을 구축하고, 대학도서관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및 제반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별, 권역별, 국가차원의 공동보존서고 설치·운영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내 각 대학도서관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 특히 이 같은 사업은 정부와 대학 및 대학도서관들 사이에 사전에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보존서고와 같은 시설이 궁극적으로는 각 대학과 대학도서관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우선은 장서의 수치적 감소나 소유권 문제 때문에 따라 손해나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 대학도서관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별 도서관 협력체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연계시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회원도서관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여 나가야 한다. 현재 대구, 경북 등과 같이 이미 활발한 지역 내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그것과 대비되는 형태나 성격을 지닌 다른 지역들이 또한 보다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해 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부합할 수 있는 협력체계의 모형을 도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각각의 대학도서관들이 국가 지식정보유통 체제라는 큰 틀 속에서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법규, 제도, 시스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개정하거나 신설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도서관 공동보존서고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 도서관계에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도서관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21세기의 지식강국화를 위해 학술정보의 유통 차원에서 자료의 활용에 목적을 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문화유산 보전 차원에서 자료의 보존에 목적을 두는 문화관광부 사이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동보존서고 설치와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이용과 보존 양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